

키워드 : 매스게임, 무격, 왕산악, 거문고, 백제금, 우륵, 가야금, 3현 3죽,

〈한국의 음악 III〉

7. 한국 음악의 역사

한국 음악의 역사를 몇 마디로 소개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길고 복잡한 음악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적 문제의 이해는 초보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 또한 음악의 역사의 이해 없이 음악 실제의 이해는 어려운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악적 사건의 개요만을 비판이나 분석 없이 소개하였다.

7.1. 삼국 시대 이전의 한국 음악(? - A.D. 무렵)

삼국 시대 이전의 한국 음악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에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기록에 의하면 고대의 한국인들은 봄과 가을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이 제사에는 반드시 음악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대개 이 때의 음악은 종합적인 연출의 형태로 음악과 춤 등이 뒤섞인 매스게임(massgame) 형태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한다. 이 때의 음악을 담당한 사람은 무격(巫覡, shaman)으로 알려 지고 있으며, 이 무격에 의한 음악이었기에 한국 음악의 기원은 무(巫)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때의 음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한반도 남쪽에는 중국의 것과 다른 우리 고유의 현악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7.2. 삼국 시대(A.D. 전후 - 7세기 말)

삼국 시대 음악의 실체는 알 수 없으나, 중국과 한국의 옛 문헌의 기록에 의해 어느 정도 음악적인 모습은 살펴볼 수가 있다.

7.2.3. 고구려(B.C.37 - A.D.668)

고구려에는 왕산악이라는 음악가가 있었다. 그는 고구려의 수상에 가까운 벼슬을 가진 사람으로 중국의 7현금을 모방하여 거문고라는 현악기를 만들었고, 친히 100여곡의 거문고 음악을 작곡하여 연주하였다고 한다. 그의 연주 솜씨는 매우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검은 학이 날아와 음악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한다. 그래서 거문고는 한자로 '현학금(玄鶴琴)'이라 이름하였고, 이것이 줄어져 '현금(玄琴)'이 되어 이 말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거문고'는 이 현금의 한글식 표기 방법이다. 학자들은 '가문고', 즉 현금이라는 뜻한 하늘이 준 현악기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악기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예전 고분 벽화에 나타난 거문고의 모습은 현재와 거의 같다.

거문고라는 토속적인 악기를 가진 고구려의 음악은 중국의 수(581-618)나라와 당(618-907)나라의 음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에서는 고구려의 음악을 궁중의 공식적인 음악의 하나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백제와 신라의 음악이 수나라와 당나라에서 공식적으

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과 비교가 된다.

또한 고구려는 중국과 서역(西域, 중국의 서쪽에 있던 여러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 중앙아시아, 서부 아시아, 인도를 포함)으로부터 끊임없이 음악을 수입하여 음악문화를 살찌워 갔다. 고구려인들은 이들로부터 음악은 물론 악기까지도 수입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기록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지리적인 문제로 대륙의 북쪽으로부터 수입된 음악 문화는 삼국 중 가장 뛰어났던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으며, 고구려의 음악은 당시의 일본 음악의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7.2.4. 백제(B.C.18 - A.D.660)

백제의 음악에 관한 기록은 많지가 않다. 또한 고구려의 음악 모습은 벽화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백제 음악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백제에도 어느 정도 발달된 음악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남부의 음악을 받아들인 백제의 음악은 고구려의 음악이 남성적이고 굳센 것인데 비해,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음악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기록에 나타난 악기로 보아서도 그렇고, 중국 남부의 문화적 성격으로 보아도 그렇다.

중국에 백제의 음악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공식적인 음악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백제 역시도 일본 음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기악이라고 하는 가면극과 이에 수반된 음악을 일본에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고구려의 거문고를 일본에 전해 주었다. 일본에서는 이를 백제금(百濟琴)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기악의 형태는 현재 한국의 탈춤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일본에는 기록과 이에 따른 가면과 같은 유물만이 남아 있다. 원래 기악은 불교의 포교(布教, 종교를 널리 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현재의 탈춤은 그 성격이 다소 변질되었다.

한편, 고구려와 백제의 음악으로는 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 많은 노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그 가사가 아직도 전해 오고 있다.

7.2.5. 신라(B.C.57 - A.D.935)

통일 이전의 신라는 문화적으로 고구려와 백제보다 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통일 이전의 음악에 관한 기록도 많지가 않다. 그러나 6세기 중엽에 가야(? - 562)로부터 가야금을 받아들인 이후의 음악 문화는 상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야가 멸망하자 가야 사람인 우륵(6세기 경)은 가야금을 들고 신라에 망명을 하였고, 당시의 신라 임금인 진흥왕(534-576)은 음악을 사랑하여 그를 극진히 대우해 주었다. 그리고 똑똑한 귀족의 자제 3인을 우륵에게 보내어 춤과 노래와 음악을 배우게 하였다.

우륵은 가야금 연주 솜씨 외에 작곡에도 뛰어났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지방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자유분방한 표현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 12곡의 음악을 작곡하였다. 그러나 이 12곡의 음악은 그의 제자 3인에 의해 간결하고 표현이 억제된 5곡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사실에 스승인 우륵은 처음에는 분개했으나, 조용하고 깨끗한 이 5곡은 우륵을 감동하게 했다고 한다. 후에 이 5곡은 신라의 궁중 음악이 되었고, 음악적 특성은 Apollon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12곡과 5곡은 그 곡명만 전할 뿐 음악의 실체는 전하지 않는다.

우륵은 가야금 음악에 천재였으나, 가야금은 가야의 임금인 가실왕(? - ?)이 중국의 쟁(箏)이라는 현악기를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의 여러 학자들은 쟁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앞서

말한 한반도 남부의 고유 현악기에서 가야금의 유래를 찾고 있다.

신라인들은 가야금 음악을 무척이나 즐겼고, 또 일본에 신라의 음악과 함께 가야금을 전해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해진 가야금은 일본인들에 의해 신라금(新羅琴)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전하는 이 한국의 고대 가야금이나 신라 유물에 보이는 가야금의 모습은 현재 정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수용하고 중국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하여, 보다 발전된 정치 체제와 문화를 가졌다. 음악도 그러했다. 그들은 3죽(三竹)이라 불리는 대금, 중금, 소금의 악기와, 3현(三絃)이라고 불리는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의 음악을 즐겼다. 이 3현 3죽은 모두 우리의 고유한 악기로 대금은 서양 음악의 Flute, 소금은 Piccolo와 비교될 수 있고, 중금은 이 셋 가운데 중간 크기의 가로 부는 관악기이다. 향비파는 가슴에 안고 타는 Kithara와 비슷한 모습의 현악기이다. 이 6종의 악기중 향비파만 제외하면 모두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악기들이다.

신라인들은 또 이 6종의 악기에 알맞는 기본적인 조이론(調理論)을 가졌으며, 이 이론에 의한 수백곡의 음악이 있었다고 하나, 그 음악은 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당나라의 음악과 불교 음악인 범패를 즐겼고, 향가라는 노래를 즐겼다. 이 중 향가는 그 가사가 아직도 적지 않게 전해 오고 있다.

한편 신라인들은 거문고 음악을 특별히 즐겼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왕들까지도 거문고 음악의 교육과 보급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다는 기록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거문고 음악은 한 때, 교양 있는 신라인이 즐긴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전통은 조선 시대까지도 계속되었다.

신라의 음악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음성서(音聲署)'라 불리는 국가적 음악 기관의 설립이다. 국가의 공식, 비공식적인 거의 모든 음악 행사를 관장한 음성서는 7세기 중반 이전에 설립된 이래 신라 멸망까지 존속하였다. 이후 이 전통은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국립 국악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라나 고구려, 백제의 음악적 특성의 하나는 한결같이 그들은 음악을 기악, 노래, 춤의 종합된 개념으로 바라 본 사실이다. 그들은 음악을 독립된 개별적인 예술로 바라보기를 거부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국립 국악원에 의해 어느 정도는 계속되고 있다. 국립 국악원에서는 현재 음악뿐만 아니라 무용까지 관장하고 있다.

1. 한국 음악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2. 삼국 시대의 음악의 공통된 관점은 무엇입니까?
3. 삼국 시대의 대표적인 악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키워드 : 연등회, 팔관회, 당악, 아악, 향악, 대악관현방

〈한국의 음악 IV〉

2.4.6. 고려(918-1392)

고려의 초기 음악은 신라의 음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다만 부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연등회(燃燈會)와 무속적인 팔관회(八關會)의 행사에 종합 예술의 형태로 음악을 사용한 기록만 있을 뿐이다. 이 두 행사는 많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고려 말까지 계속되었고, 이 속에는 많은 신라 음악의 흔적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초기와는 달리 중기 이후는 뚜렷한 고려 음악의 특색이 보이기 시작한다. 1114년과 1116년의 두 번에 걸친 중국 송나라와의 음악 교류에서는 송의 신악(新樂) 중의 하나로 사악(司樂)이라고 불리는 당악(唐樂)과, 송의 궁중 제사 음악이 아악(雅樂)이라는 이름으로 수입되었다. 이후 아악, 당악, 향악의 구별이 분명해졌고, 이 분류에 의한 구별은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

고려인들도 무척이나 음악과 무용을 즐겼다. 그것도 한국 음악과 무용, 중국 음악과 무용을 가리지 않고 즐겼다. 그래서 수많은 향악과 당악이 독립적으로 혹은 무용과 함께 궁중에서 연주되었다. <고려사>에 보이는 32곡의 향악과 43곡의 당악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중 향악은 적지 않은 수가 악보로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으나, 당악은 오직 <보허자>와 <낙양춘>의 두 곡만 전해오고, 연주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한국 음악화되었기 때문에 중국식 당악의 느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남의 문화를 받아들여 한국 문화화하는 이러한 힘은 한국 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고려의 음악적 사건 중 1116년의 대성 아악의 수입은 가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당시 수입된 아악은 비록 불완전하였으나, 이후 한국 음악에 아악의 기초를 제공해주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당악과 향악에 아악을 추가함으로써 음악 문화의 확대를 가져다 주었다. 이외에는 고려에는 외국 음악의 흔적이 상당히 보이기도 한다.

한편 고려의 음악은 중국 송나라에서 아악과 당악을 수입함으로써 많은 아악기와 당악기를 확보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즐기기도 하였고, 이 음악은 조선의 성악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음악의 가사는 그 대부분이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었다.

고려인들은 신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음악 기관을 두었다. 대악서(大樂署), 관현방(管絃房), 혹은 대악 관현방(大樂管絃房)으로 불리운 이들 음악 기관은 10세기 말엽에 설립되었고, 고려가 망할 때까지 이름이 변하기도 하였으나 존속하면서 활발히 음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음악 기관의 관리들은 귀족이었으나, 실제의 음악인들은 천민이었고, 대개가 세습적으로 그 일을 이어갔다. 이 점은 신라의 음악인들 거의가 교양 있는 비교적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과 대조가 되고 있다.

1. 고려와 송나라의 교류가 한국 음악사에 가져온 중대한 변화는 무엇입니까?